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으로 인한 위험관리 효과 증대

□ 한국거래소(이사장 최경수)는 파생상품시장의 **제도 도입('14.9.1, '14.9.15)** 후 약 2개월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,

○ 기관 등 **위험관리 목적 투자자의 헤지 거래가 유입**되는 등 **위험관리 목적의 투자환경이 개선**된 것으로 파악

※ 한국거래소는 '14.6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「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」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일 코스피200선물·옵션의 협의대량거래 및 장기결제월물 도입, 9월 15일 주식선물시장의 종목 수 확대 및 시장조성자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

□ 협의대량거래 도입 후 **기관 등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**의 **헤지 수요 및 롤오버 수요가 발생**

○ 코스피200옵션의 협의대량거래는 모두 기관 등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의 거래로써 기존의 장외 수요가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(약 50,560계약, 1,422억)*

* 이 중 외국인투자자의 협의대량거래 비중은 약 83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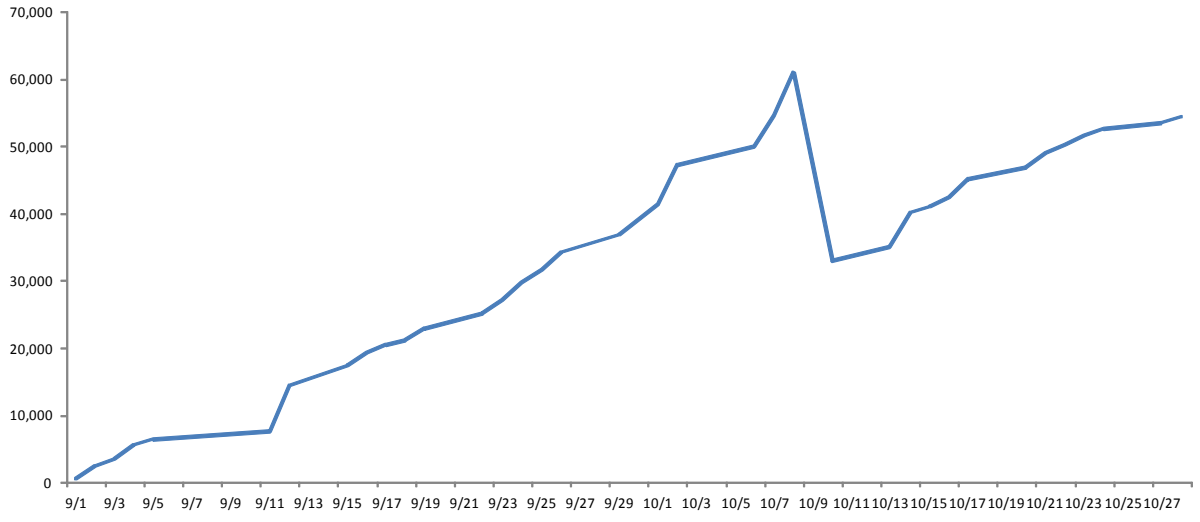
○ 코스피200선물은 롤오버* 수요 등으로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(약 46,230계약, 6조)

* 롤오버(Rollover) : 선물의 보유포지션(최근월물)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일(차근월물)로 이월하는 것

□ 한편, 장기결제월물의 경우 **유동성이 부족한 원월물 종목**에서 **기관 등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의 수요 유입**으로 **미결제약정 수량이 꾸준히 증가**

○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신규 상장 종목의 미결제약정 수량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임

《 코스피200옵션 신규 상장 종목의 미결제약정 수량 변동 추이 》



○ 장기결제월물 제도 도입 후 코스피200옵션의 최근월물·차근월물을 제외한 원월물 거래량*이 증가

* 제도 도입 전 일평균 거래량(5,483계약) 대비 약 67% 증가(9,156계약)

○ 장기결제월물의 원월물 거래 중 기관 등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약 75%(약 75,460계약, 2,183억)로써 장기결제월물 또한 기존의 장외 수요가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

□ 또한, 개별주식선물의 경우 최근 증권시장의 단기간 하락 등에 따른 **헤지수요의 증가로** 제도 개선 후 **미결제수량이 110만 계약(10.28기준)으로** 제도개선 전 평균 64만 계약과 비교 시 **71.4% 증가**

○ 제도 개선 후(9.15~10.28) **일평균 거래량**과 **거래대금**은 제도 개선 전('14.1.2~9.14)과 비교 시 각각 **29.1%, 33.5% 증가**

《 제도개선 전후 거래규모 》

	제도 개선 전(A) ('14.1.2 ~ 9.14)	**제도 개선 후(B) ('14.9.15 ~ 10.28)**	증감률
일평균 거래량	351,965 계약	**454,532** 계약	+29.1%
일평균 계약금액	2,292 억원	**3,059** 억원	+33.5%
미결제수량	641,153 계약	**1,099,250** 계약	+71.4%

□ 개별주식선물의 경우 유동성이 활발한 3천 계약 이상 종목도 제도 개선 초기(9/15)보다 대거 증가(21 → 31종목)

○ 시장조성자 없이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한 1만계약 이상 종목은 초기 8종목에서 10월 28일 현재 13종목으로 6종목 증가

○ 헤지·차익거래가 가능한 3천계약이상 1만계약 미만의 종목은 초기 13종목에서 10월 28일 현재 18종목으로 5종목 증가

○ 특히, KRX는 3천계약 미만의 종목에 대해서 시장조성자가 시장을 집중 조성하여, 투자자가 주식선물 모든 종목에 대해 헤지·차익거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

□ **(향후전망) 위험관리 목적 수요 증가**로 **협의대량거래 및 장기결제월물의 거래량 증가**와 이에 따른 **미결제약정도 증가**할 것으로 전망

○ 파생상품시장이 본연의 기능인 위험관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□ **(향후계획)** 한국거래소는 11월 17일부터 주식선물·옵션시장에도 협의대량거래를 도입할 예정이며,

○ 회원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**위험관리 목적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**하여 **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 시장으로 육성**할 예정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krx.co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